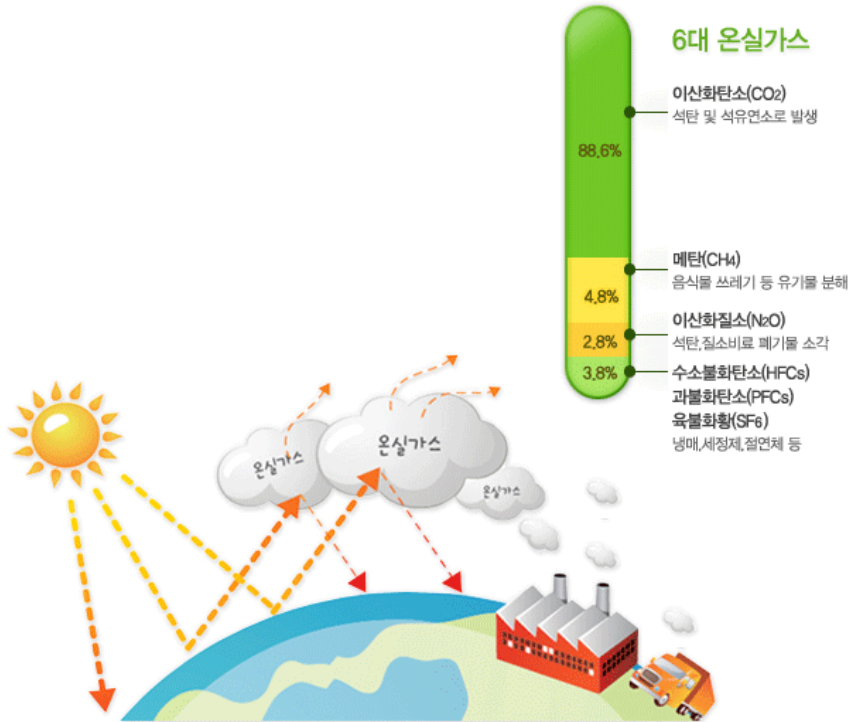


## 저탄소생활

### 저탄소 사회

#### 탄소배출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경문제의 주범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온은 지난 100년간 약 1.5℃ 상승하며 세계 평균의 2배가 상승하였으며 해수면(제주)도 40년간 22cm가 상승하여 세계 평균의 3배에 이르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세계적인 기후변화, 오염, 사막화, 해수면의 상승 등 다양한 환경문제와 이산화탄소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문구 많이 보셨지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향후 경제발전의 추진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 환경단체에서 탄소저감운동을 홍보하고 그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환경문제에 다른 요인도 많을 텐데 특히 탄소배출을 줄이자고 강조할까요? 그것은 이산화탄소가 전방위적인 지구환경문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지구의 대기온도가 상승하여 기후가 변화하고,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 등은 모두 온실효과와 연관이 있습니다. 온실효과는 온실가스라고 불리는 이산화탄소, 메탄과 같은 물질들이 지구에서 방출되어야 할 열 에너지를 방출되지 못하게 막으면서 발생합니다. 온실가스 중에서도 특히 이산화탄소의 영향이 가장 크며,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지금까지 주로 사용해 온 석유와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발논리로 세계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마저 벌목으로 인한 삼림훼손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줄여주던 나무들이 베어져 나가면서 이산화탄소의 증가를 막기 위한 직접적인 노력이 절실합니다.

### 저탄소 사회를 위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물론 산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현재의 온실효과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이나 발전소와 같은 산업시설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구호 아래 화석연료를 사용한 개발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염배출권과 같은 제도가 바로 이러한 노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 알아봅시다!

저탄소 사회(Low Carbon Society) : 인위적인 인간활동에 의한 탄소배출량이 자연의 흡수량 한도 이내에 그치는 사회를 말합니다.

오염배출권 제도 : 자연에 배출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정해놓고 그 총량 내에서 공장들이나 지역주민이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한 기업이 오염물질을 추가로 배출해야 할 경우에는 다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배출권을 사와야 하며, 정해진 총량보다 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자 한다면 지역주민이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사올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오염이라는 환경비용에 금전적 가치를 부여하여 시장경제의 원리를 환경문제에도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도 저탄소 사회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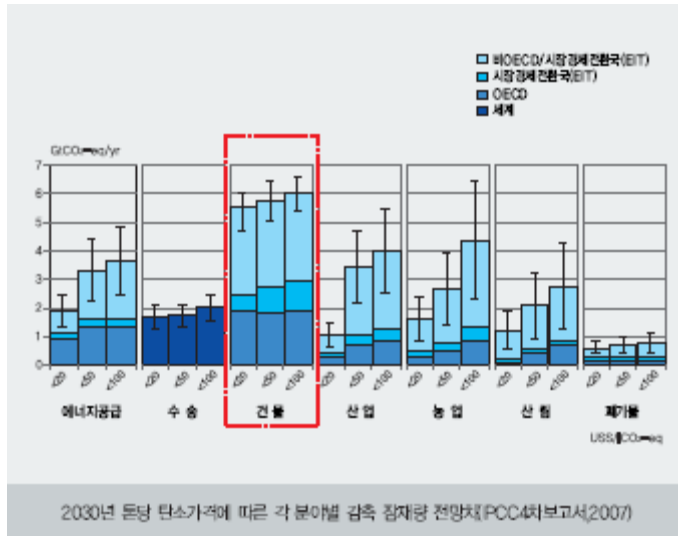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상관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생활습관이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줄이면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등의 온실가스가 줄어듭니다.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으로 대체하면 석유연료의 사용과 배기가스도 줄어듭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지속이네 하루일과’를 참고하시고 여기에서는 저탄소 사회를 위한 생활 속의 실천 제도인 탄소포인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탄소포인트제도

#### 탄소포인트제도가 무엇인가요?

탄소포인트제도는 저탄소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대응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국민 개개인이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탄소포인트제도에 참여하면 가정, 상업시설, 기업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포인트로 환산하여 적립할 수 있으며, 포인트 실적에 따라 물품구입이나 시설이용 등의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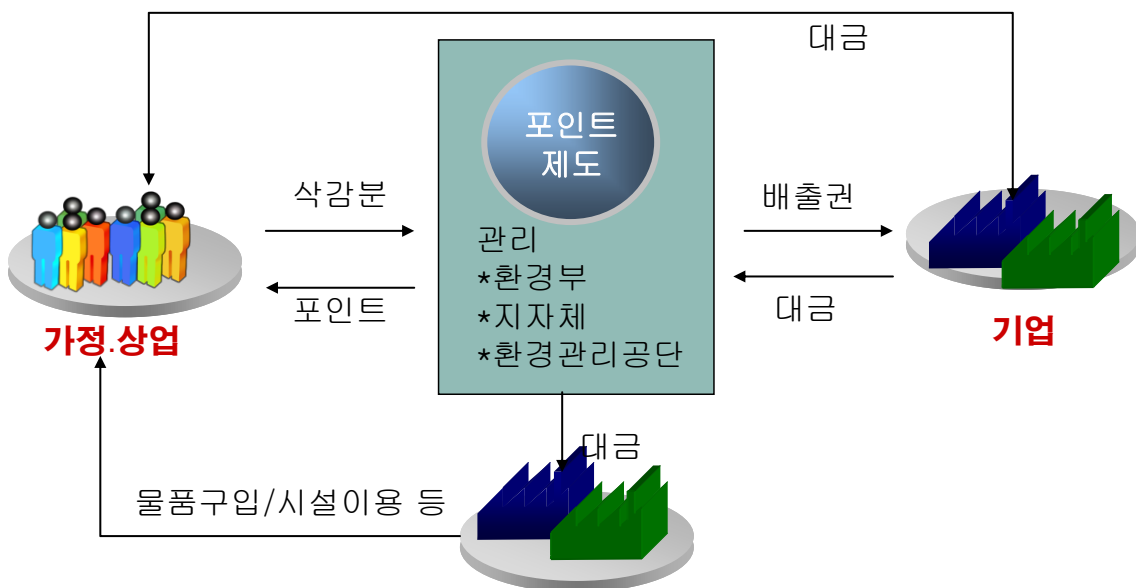
## 탄소포인트제 도입 배경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4차 평가 보고서(2007)에 의하면 건물, 가정과 상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환경부)는 그간 산업부문에 치중해 온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가정 및 상업 시설에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자 탄소포인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탄소포인트제 참여방법

탄소포인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정, 상업부문의 관리를 통해 국가 기후변화 온실가스 대응에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탄소포인트제를 통한 성공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탄소포인트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 상업시설은 인터넷(<http://cpoint.or.kr>)을 통해 참여를 신청하고,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사이트에 등록하면 됩니다. 현재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14개 지방자치단체(부산, 대구 수성구, 광주, 수원, 성남, 과천, 파주, 춘천, 천안, 전주, 여수, 김해, 하동, 제주)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으며, '09년에는 전국 60여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계획입니다.



우선 전기, 수도부문에 대해 실시하며, 향후 도시가스 부문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 국가 배출권 거래시장 형성 후 거래시장에 연계하여 포인트를 판매하는 탄소 시장 연계단계까지 계획입니다.

### **탄소포인트제의 외국 사례**

일본 환경성의 Carbon Offset Initiative

- Carbon Offset은 1차적으로 개인과 기업에게 그들의 활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식시키고 배출을 피하거나 줄이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방법으로는 자신들이 배출한 양만큼 Credits을 구매하고 이 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등에 투자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활동을 하는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